

더라도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수입물품이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가 제조·가공한 물품일 경우, 권리보유자와 제조자 사이에 권리보유자가 제조사로 하여금 권리보유자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이를 권리보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만 권리보유자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업체는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위와 같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4) 이 사건 물품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는 이미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가공엽 등 담뱃잎 재료(tobacco materials)

(1) 담뱃잎은 세계 각국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에 불과하다. 원고가 수입한 가공엽은, 가습, 제맥, 건조 등의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쳐 포장된 담뱃잎에 불과하다. 그 가공 및 포장은 J(판매자)이 아니라 C와 특수관계가 없는 농장이나 도매업자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정에 불과하다. 원고에게 가공엽을 판매한 J은 원고와 가공엽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라이선서들과 담뱃잎 가공엽자 사이에 위탁생산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다. 한편 J에 가공엽을 공급한 가공엽자나 도매업자는 C 그룹의 경쟁사에게도 담뱃잎을 공급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국내에서 담뱃잎을 조달하여 I 담배 완제품을 제조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가공엽에 어떤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투입되어 있다